

보도일시 (인터넷) 2023. 5. 29.(월) 11:00,
(지면) 2023. 5. 30.(화) 조간

배포 2023. 5. 26.(금) 오후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자율운항선박 기술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위해 노력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30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에서 'IMO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이하 'MASS*') 협약 개발**에 대한 진전(Making Headway on the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선박 출현에 따라 IMO는 2022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관련 새로운 협약을 개발 중이며, 2024년까지 개발 완료 후 2024년 비강제협약 승인, 2025년 강제협약 채택, 2028년 강제협약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사분야의 친환경·탈탄소·디지털 등 핵심현안에 대한 논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우리 산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영국 현지 'IMO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올해 초부터 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심포지엄은 임기택 IMO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MASS 연구기관, 조선소 및 영국, 노르웨이 등의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IMO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자율운항선박 협약 'MASS Code'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또한, MASS 도입으로 인한 국내 항만(부산 및 인천)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최신 기술을 국제사회에 선보임으로써 향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IMO 회원국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김희곤 (044-200-5825)
담당 부서 <기술개발>	해운물류국 스마트해운물류팀	책임자	과 장	오영록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이세훈 (044-200-6202)



참고 1

IMO 본부 사진 및 자율운항선박 관련 사진



참고 2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개회>		
09:30~09:35	개회사	임기택 IMO 사무총장
09:35~09:40	축사	윤여철 주영대사관 겸 주IMO대표부 대사
<세션 1> 자율운항선박 개발, 새로운 시대의 준비		
09:40~10:00	자율운항선박 지능항해 시스템 개발 및 검증 프로세스 개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여동진 책임연구원
10:00~10:20	영국의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법률 및 산업계 프로젝트	UK Maritime & Coastguard Agency Katrina Kemp
10:20~10:40	기관자동화시스템(CBM) 개발 현황 및 계획	한국선급 박재철 수석연구원
10:40~11:00	노르웨이 자율운항선박 연구개발 우선순위 및 기술과제	Norwegian Forum for Autonomous Ships Ørnulf Jan Rødseth
11:00~11:30	휴식 시간	
11:30~11:50	자율운항선박 개발 기술의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 구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임근태 센터장
11:50~12:10	질의·응답시간	참석자
12:10~14:00	점심시간	-
<세션 2> 자율운항선박 기술 상용화 및 MASS Code 개발에 대한 제언		
14:00~14:20	자율운항시스템 가상 시험 및 실증을 통한 성과 공유 및 일반 방법론 제안	삼성중공업 김성준 수석엔지니어
14:20~14:40	원격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중요 요소/원칙	One Sea Association Marko Rahikainen
14:40~15:00	시장에서 자율운항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MASS Code 제안	HD현대 임도형 상무 및 주효경 연구원
15:00~15:20	Autoship - 유럽 해역내 자율운항선박 물류 추진	SINTEF Ocean Lars Andreas Lien Wennergberg & CiaoTech Marco Molica Colella
15:20~15:40	기술에서 현실로; MASS Code 내 상황인식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한 자율운항 상황인식 시스템 상용화	Seadronix Corp. 김한근 기술이사
15:40~16:00	질의·응답시간	참석자
16:00~16:30	휴식 시간	-
<Session 3> 항만 : 항만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과 항만간 연결		
16:30~16:50	인천항의 디지털화	인천항만공사 이재훈 주임
16:50~17:10	항만 호출 동안 운영을 위한 IMO Compendium 사용 방법	SINTEF Ocean Marianne Hagaseth
17:10~17:30	부산항의 혁신과 기술	부산항만공사 연정흠 실장
17:30~17:50	질의·응답시간	참석자
17:50~17:55	폐회사	IMO 해사안전국장 Heike Deggim
17:55~18:00	사진촬영	-
18:00~19:00	리셉션	